

공 개



의안번호	제 7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2. 18. (제 3 차)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2. 18.

1. 의결주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6.29.~2020.7.22. 기간 중 실시한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가 2017.4.7.~2019.5.1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171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과징금 28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 법규 : <붙임 1>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96조(과징금), 舊「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32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2.17.) 심의필

<별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 과징금 28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 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는 2017.4.7. ~ 2019.5.1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 171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71건(수입보험료 102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는 대신 동일 보험상품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청약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 부담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기존보험계약(171건)은 모두 해지

※ 보험설계사 108명 : 회사가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 기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계약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비교안내 미이행의 귀책이 회사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면제

☐ 동 건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4. (생략)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舊 제196조*(과징금)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 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제96조 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 계약의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③ (생 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1. 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28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 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는 2017.4.7. ~ 2019.5.14.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 171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71건(수입보험료 102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는 대신 동일 보험상품을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청약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 및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 부담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기존보험계약(171건)은 모두 해지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72	02-3145-7677